

아름다운 우리말과의 조화로운 만남

김중희 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교수

문학 속의 우리말, 그것도 어감이 좋고 적용된 문맥에 잘 어울리는 말을 만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기쁨이다. 때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 까닭에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말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전후 상황에 견주어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 뜻풀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말을 사랑한다는 언표는, 어찌면 나는 베토벤을 좋아한다고 밝히는 것처럼 쑥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을 당연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우등생의 모범 답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우리말, 곧 모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글을 써 왔고 또 쓰고 있다. 국내의 문인들도 그러하지만 해외 여러 지역 동포 사회의 문인들도 그러하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모국어 사용 금지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말을 지킨 문인들도 있다. 그리고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국경일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이처럼 날 때부터 허락받은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있는 듯하다. 수천 년간 곳곳을 떠돌면서 제 나라를 갖지 못했던 유대 민족이 종내 이스라엘에 정착하기까지, 그 민족정신의 저변을 이룬 것은 자기 언어에 대한 집중이었다.

1433년(음력)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글 한글

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술(IT) 융성 시대에 와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만약 그때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말은 같은 말을 쓰되 글은 어떤 것을 쓰고 있을지 알 수 없다. 한글, 반포 당시의 말로 ‘훈민정음’은 나랏말 제정이라는 문화 주체적 의도와 국어 음 바로잡기라는 언어 교정의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 제정 바탕에는 무엇보다 백성을 우선한 교훈성, 여러 다른 언어들의 구조를 원용한 학술성, 그리고 천지 우주와 사람의 세 상살이를 두루 통찰한 철학성을 함께 포괄했다.

우리말의 정확하고 진중한 의미망은 그것이 잘 짜인 문학 작품 속에 안착하고 있을 때 자갈 속의 보석처럼 더욱 빛을 발한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우리말의 뛰어난 소중함, 그리고 그 말의 맛과 향기를 실감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예증의 빈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먼저 명사형으로 쓰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이든지 써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혜살**을
놓을 계책을 생각하느라고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심훈, 《상록수》 중)

우리는 **각성**까지로 모여서 형이니 동생이니 하고 지내는데, 친형제
보다도 더 우애 있게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홍명희, 《임궏정》 중)

감주를 만들려고 막 찌서 내놓은 **지에밥**을 슬쩍 집어서 손바닥을 호
호 불어 가며 뭉쳐서 아이에게 주기도 하고…….

(박경리, 《토지》 중)

아마 벌레집은 시멘트 틈서리 속 썩은 나무 기둥 속에 있을 것이다.

(박완서, 《오만과 몽상》 중)

이러한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어휘들은, 그 어의를 풀어보면 더 감칠맛이 나는 우리말의 사례에 해당한다. 말의 발견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기도 한다. ‘혜살’은 짓궂게 휘방하는 짓, ‘각성바지’는 성이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고, ‘지에밥’은 찹쌀이나 멥쌀을 물에 불려서 시루에 찐 밥, 그리고 ‘틈서리’는 틈이 난 부분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그런가 하면 동사나 형용사형으로 쓰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온화하고 함초름한 곡조 소리는 살랑거려 불어오는 가을바람도 봄바람인 양 다사롭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박종화, 《다정불심》 중)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

바로 그 완장을 통해서 그는 지도에 그려진 광활한 땅덩어리 전체가 갈축없는 자기의 소유물임을 알뜰뜰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윤홍길, 《완장》 중)

슬슬 눈치를 보며 배돌았고, 혈색 없는 얼굴로 통 입을 떼지 않았다.

(조정래, 《태백산맥》 중)

예로 든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동사 및 형용사 역시 그 어감과 말의 움직임 또는 형용으로 인하여 문장의 맛을 더하고 의미의 전달을 보다 자연스럽게 한다. ‘함초롬하다’는 젓거나 서려 있는 모양이나 상태가 가지런하고 차분하다는 뜻,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깔축없다’는 조금도 축나거나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고, ‘배돌다’는 한데 어울리지 아니하고 조금 동떨어져 행동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문학 작품 속 우리말의 표현법들은, 하나의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실제로 감각해 보는 데 효력이 있다.

작가에 따라서는 이처럼 효용성 있는 우리말 사용이 체질화되어 그 소설 문장 속에 녹아든 경우도 많다. 김주영이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장편 《화척》을 읽어 보면 한마당 흥겨운 잔치판처럼 순우리말의 향연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작품론으로 필자가 쓴 “역사의 전면과 후면, 왕조사와 민중사의 접점”이란 글에는 이 대목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

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으로 무릎을 치거나 작가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휘력과 문장의 표현력 때문일 것이다. 동시대의 어느 작가도 흉내 낼 수 없는 다양하고 풍성한 어휘, 번득이며 정곡을 찌르는 재치, 해학적이며 유장한 문장, 육중하면서도 해박한 역사적 관찰력 등은 김주영을 김주영답게, 그리고 《화척》을 김주영의 근작 소설답게 하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팔 긴 것 보니까 웬만한 강나루도 넘겨짚겠다, 사추리에 가래뚝이 서다, 지기 펴고 산다, 구척하기 쉽지 않다는 돌고기, 배젊은 계집, 신발차, 실토정, 송어뽕, 여축없이 잡도리, 피바르게 등등, 잠깐 등

안에도 우리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토속적이고 요긴하면서도 적확한 어사나 문장을 여러 묶음 그리모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소도구들을 통하여, 그것을 능란하게 사용하는 하정배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곤고하면서도 끈질긴 삶을 역사적 사실성의 행간에 비끄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탁발한 역사 소재의 세태 풍속 소설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김주영과 그의 작품들을 우리 시대의 소중한 문학적 성과로 받아들이며, 그의 역량이 더 알차고 돌출한 경계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김주영이 소설 속 우리말 사용에서 이러한 성과에 이르렀다면 이문구는 사뭇 다르고 또 특이하다. 이문구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그의 향리인 충남 보령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의 방언이 온 천지에 눈발 날리듯 난무하고 있다. 방언뿐만 아니라 잊혀 가는 우리말들을 되살려 소설의 문면 처처에 뿌려 놓아, 소설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이 생소해서 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의 소설이 문학상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느 심사위원은 이 점을 두고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심사평을 적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 읽기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의 우리말에 대한 애착은 소중하고 모두가 함께 기려야 할 미덕이다. 미상불 이는 이문구에게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의 새로운 조어로 작품 제목을 쓰고 이를 스스로 기꺼워한 작가도 있다. 김원일의 초기 작품 가운데 〈어둠의 혼〉, 〈어둠의 축제〉 등이 있다. 작가는 암흑, 어둡다 등의 어휘가 이미 있었지만 어둠이라는 말이 문학 작품에 쓰인 바가 없었고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

한 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기실 이러한 용어의 처음 사용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렇게 우리말을 만들고 살려 쓰려는 그 작가의 의지가 필자에게는 더 귀해 보였다.

문학 속의 우리말은 문장으로 풀어서 쓰는 소설뿐만 아니라 그것을 압축하고 상징화하는 시에서도 패각 속의 진주처럼 찬란할 때가 많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김소월과 박목월의 짧은 시편들, 조지훈의 〈승무〉와 같이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시, 천년 동안의 전통적 세계를 펼쳐 보이는 미당의 시편들, 그리고 민족 정서의 원형들을 동원하여 풍성한 그리움을 안겨 주는 백석의 시편들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이러한 시들은 그냥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말과 글의 보물 창고다.

이는 언어가, 말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고 운행하는 쓰임새가 없다면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고 계승되기 어려운 까닭에서이다. 일제 강점기의 궁핍하고 척박하던 시기에, 많은 문인들이 우리말로 글 쓰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일본어로 글을 썼다. 그러나 소수의 작가들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 황순원은 그중 한 사람이다. 필자가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범”이란 제목으로 쓴 황순원 문학적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황순원의 문학은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순수성,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했고 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켰다. 그가 일제하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읽히지도 출간되지도 않는 작품을 은밀하게 쓰면서 모국어를 지킨 일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춘원 이광수에게 작품을 보냈더니, 큰 격려의 말과 함께 앞으로는 국어, 즉 일본어로 글을 쓰라고 하면서 말미에 향산광랑(香山光郎)¹⁾이라 적었더라고 들려준 적이 있다.

대부분 그의 작품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의 가열함 속에서도 진실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암중모색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며, 문학사에서 그를 낭만적 휴머니스트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황순원은 한국 작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시인에서 출발하여 단편 소설 작가로 자신을 확립했고 다시 장편 소설 작가로 발전해 간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런 연후 말년에 이르러서 다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단편 소설과 시의 세계로 돌아와 스스로의 문학 세계를 완결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단편 <소나기>와 <학>은 전란의 여진이 분분하던 1953년의 작품인데, 이 시기는 작가가 단편의 세계를 넘어 장편으로 나아가던 무렵이다. 다시 말하면 단편을 쓰는 작가의 역량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의 작품이라는 얘기다. 그런 만큼 그 짧은 소설 속의 어휘나 문장은 황순원 문학의 천정을 때릴 만한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백미편이라 할 수 있다.

<소나기>는 시골 소년과 서울서 온 소녀 사이의 순수하고 미묘한 감정적 교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제나 이야기의 전개보다도 여기에 동원된 언어들의 정제되고 맛깔스러운 모양새가 더 아름답다.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된 <소나기>가 과연 그 의미 깊고 수준 높은 우리말의 어감을 잘 살려낼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나기>에 있는 그 언어의 꽃밭을 여기에 모두 옮겨 놓을 수는 없다. 그러자면 단편 한 편을 모두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한국 국민 모두는 이 소설을 읽으며 문학을 익혔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 새 마

1) 향산광랑(香山光郎, 가야마 미쓰로)은 이광수가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음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소나기>의 작품 무대로, 소설의 형상을 문학 테마파크로 재현한 소나기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문학 마을 전체가 <소나기> 또는 황순원의 작품들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래서 3층 건물인 문학관의 외양 또한 수숫단 모양을 하고 있다. 실내의 여러 시설 이름도 작품 속의 우리말 어휘들로부터 따와서 남풋볼 영상실, 마타리꽃 사랑방, 쪽빛구름 쉼터, 갈밭머리 쉼터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이 이름들을 매우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 문학 작품 속의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그 작품의 얼개 아래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나와 유익하고 조화로운 악수를 청한 모습이 거기에 있다.